

---

중앙대

## 리플렉션

---

**“스위프트 교재가 내용이 부족하다”**

“디자인씽킹 예제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다.”

**“퀴즈풀이가 어려움”**

“진도가 느리고, 수업의 내용의 깊이가 깊지않다.”

**“만들고 싶은 앱을 만들어서 좋았다.”**

“인터넷 강의가 어렵다.”

**“디자인 시간이 너무 길었다. 그 시간에 코딩을...”**

“처음에 어려운 걸 먼저해서 사람들의 수준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.”

**“방학때 수업을 참여하는 것이 힘들었다.”**

“디자인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불만”

“스위프트란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었다.”

**“비전공자를 위한 적절한 수업이다.”**

“자신의 아이디어 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.”

**“Delegate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.”**

**“윤성관 대표가 Git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다.”**

---

중앙대

## 강사 회고

---

# Legacy

“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방식은 혼란을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.”

“하지만 강사인 내가 오히려 내 강의에 불안해하고 있었다.”

과정의 결과를 통해 어느정도의 불안은 사라졌지만, 여전히 이 과정에 대한 불만은 존재한다.